

式이다. 下臺는 上·下二石으로 八角인데 下石側面에는 一面二區씩의 眼象을 새기고 그 안에 귀꽃모양의 彫飾이 있으며 上石에는 伏蓮을 둘러고 八角마다 귀꽃을 彫刻하였는데 그 手法이 注目되었다.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받침과 一段의 물딩이 있어 괴임을 삼고 그 위 높직한(高七cm) 또 하나의 괴임으로서 一石의 八角竿柱를 받고 있다. 竿石下部에는 側面에 雲紋을 陽刻한 一段(高十三cm)을 마련하고 그 위 八面에는 아무 彫飾이 없는데 各面마다 上狹下廣의 「엔타시스」를 나타냈음은 特異하다 할 것이다. 中臺石은 下部에 三段의 角形받침이 있으며 側面에는 仰蓮을 들렀는데 各面中央에 一瓣을 彫刻하고 隅角에는 細長한 蓮瓣을 한쌍씩 配置하였는데 그 手法이 流麗하며 特히 中央瓣內에는 花瓣裝飾이 있어 注目되었다. 上面에는 三段 괴임이 있어 塔身을 받고 있는데 八角塔身의 各面은 다시 額(三·五cm×四·五cm)을 들렀고 南·北二面에는 門扉가 있으며 中央에 자물쇠가 陽刻되어 있다. 塔身에도 竿柱와 같이 「엔타시스」를 나타내었다. 屋蓋石은 下面에 三段받침이 있으며 서까래의 構造는 없으나 추너가 한층 높아졌고 轉角의 返轉도 端雅하여 各隅角마다 瓣처럼 생긴 귀꽃과 잘 어울리어 雄建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귀꽃의 모양과 彫法은 興法寺眞空大師塔의 것과 同樣式系라 할 것이다. 落水面에 개와골은 없으나 八角의 合角이 뚜렷하며 頂部의 八面에 들린 伏蓮도 美麗하다. 相輪은 現在 覆鉢과 寶珠二石으로 되어 있는데 覆鉢의 上下는 平面圓形이고 外周에 蓮瓣이 있으며 中間鼓部에는 二條線을 둘러고 그 中間四處에 四葉花紋을 配置하였다. 寶珠는 下部에 圓臺(高十七cm)를 마련하였는데 上, 下에 蓮瓣과 中央에 二條線을 둘러진 것이 覆鉢과 恰似하다. 그 위 三面은 上端이 磨損되어 彫飾을 알 수 없으나 各面二瓣씩의 蓮華紋을 새긴 것은 確然하다. 以上 塔의 構造와 樣式 手法 등을 紹介하였다. 十石으로 散在된 塔材를 마추어 再建하고 보니 어느 部分에서는 當初의 組立과 같지 않아서 多少 未恰感을 禁치 못한다. 年代는 雄麗한 모습이나 眼象 및 蓮瓣 등의 手法과 各部樣式으로 보아 高麗中期以前의 秀作으로 推定되는 바 이렇듯 貴重한 塔의 再建에 따르는 앞으로의 保護 施算이 철저히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値는……(單位 cm)

地臺石(高三一邊長二〇六) 下臺石(高五九一邊長六八)  
竿石(高三七一面幅(上三一, 下三三)) 中臺石(厚三九一邊長五六)  
塔身(高五二一面幅三五) 屋蓋(厚八〇一邊長七〇)이다.  
끝으로 이번 工事に 있어서 酷寒에 始終 手苦하여 주신 長韓建設株式會社의 鄭復永氏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註) 지난 一月二四日 黃壽永, 秦弘燮, 崔淳雨, 諸教授를 비롯 鄭永鎬 등이 現場의 塔材調査를 하고 一月三十一日 着工 二月三日 竣工(一月三十一日 韓國日報, 二月一日 東亞日報, 二月三日 京鄉新聞, 大韓日報, 二月四日 韓國日報 記事參照)。이 외에도 浮屠一基와 塔材가 多少 整理되었음을 附言한다.

### 葆華閣의 石佛 二軀

黃 壽 永

葆華閣 後園에 配置된 石造物들을 一九五九年 三月에 간략하게 調査하였을 때 潤松先生은 主人許可도 없이 無斷侵入하였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아마도 整備되지 않은 現場을 찾은 것을 못마땅히 여기신 듯하였다. 그러나 先生은 이 곳 塔像에 對하여 入手하기까지의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며 혹은 百濟石佛이라 함에 샅다 하시고 혹은 閣後의 三層塔에 대하여는 日本財閥과 大阪에서 競買가 되어 엄청난 값으로 落札을 보았는데 막상 日本서 실어다 놓고 보니 기대와는 捰판이더라고 하였다. 그 후 하루는 先生과 함께 이 곳을 찾아 石物을 돌아본 일이 있었는데 槐山原在의 高麗浮屠만 하더라도 몇번 復舊를 조른일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先生은 「가만히 있어」하시며 좀더 두고 보자는 것이었다. 先生 二周忌를 기념하고자 이 塔을 再建하면서 同人들과 더불어 感慨가 깊었던 까닭이 이와 같은 곳에 있었다.

二

蕙谷兄의 말을 들으면 이곳 林間에는 石佛이 이곳저곳에 安置되어 있었다는바 戰後 혹은 자취를 감추고 몇 軀는 閣內에 保管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小像 以外에 아직도 先生에 의하여 配置된 그 자리를 지키는 比較的 큰 石佛이 있는데 하나는 坐像이요 다른 하나는 立佛이다. 이들은 모두 臺座와 光背를 具存하지 못한 佛身뿐인데 保存은 그런대로 良好한 편이다. 먼저 年代로 보아 坐像이 앞서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 基座는 서로 마려진 것이나 前後의 板石만은 古塔基壇의 面石을 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面石에는 각기 四天王 立像이 一軀씩 새겨 있어 古拙소박한 솜씨를 보이는 바 그 中 前面것이 左手寶塔에서 多聞天으로 보인다. 이 基座위에는 一枚의 方形蓮花臺石이 놓였는데 元來 이 坐像의 것으로 생각된다. 如來像인 바 작은 차들이 많이 섞인 花崗石이어서 조각의 솜씨는 精密하지는 못하다. 結跏趺座하였고 右肩偏袒으로 觸地降魔手印을 보이고 있다. 豐滿한 相好나 堂堂한 體軀 넓게 퍼진 두 어깨에서 받는 量感과 사실적인 作風 등에서 新羅樣式系의 作品으로 보고자 한다. 先生께서는 日人 天池(商人名)로부터 購入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을 뿐 搬出된 땅은 알 수 없으나 혹시 慶尙道가 아닐까 한다. 背面 솜씨에서 光背가 推定되는 바 坐高一 m 二五 膝幅一 m 肩幅八一 cm이다.



다음에 長身庾軀의 立像인데 그 三段臺石 위에 身部下端이 嵌入되었고 兩足の 表現은 없다. 이것은 原來의 臺石이 따로 만들어져서 아마도 그 上面에 兩足이 새겨졌던 것으로 보이거나 어떠한 事情인지 身臺가 分離된 것으로 보인다. 身部는 斷面三角形으로서 上下가

筒體를 이루고 있는 바 刻線은 前面만으로 通肩의 法衣는 左右로 퍼졌으며 兩腕도 身幅에서 겨우 벗어나 날 뿐 모두 屈折하여 胸前에서 모은 것이 몹시 궁색하다. 肉髻가 있는 頭部와 납작한 顔面은 멧없이 키가 큰 身部에 比例하여 작은 편인데 民間信仰에 따르면 造形으로서는 그대로 볼 만한 作品이다. 筆者는 이같은 作品은 年代를 훨씬 내리서 高麗中期以後에 두고 주로 忠淸, 全羅 등 옛 百濟故土를 中心으로 한 때 流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佛敎가 한층 地方에 普及되어 民俗과도 習合된 時代의 所産이다.

그런데 筆者는 언제나 이같은 선물形 長身佛의 祖形으로서 扶餘 錦城 山石佛立像(扶博藏)을 먼저 생각하는 바 이 扶餘像은 百濟下代의 作으로 볼에 아직 異議가 없는 것 같다. 그리하여 이같은 百濟古佛이 이 地域에서 하나의 基準作이 되어 그것이 復古的인 地方樣式으로서 再現되므로서 一系의 作品들이 造成된 듯 하다(公州博物館門內向左立像·益山 古都里 石佛·唐津 安國寺立佛等) 이것은 마치 扶餘邑南의 百濟五層石塔(定林塔)이 百濟의 孤塔으로서 남으면서 高麗에 들어서 流行한 同樣式系塔의 典型이 된 것과 매우 類似하다(扶餘長蝦里塔·鷄龍山男妹塔·舒川庇仁塔·井邑隱仙里塔·金堤歸信寺塔 모두 이 樣式系의 高麗塔들이다)。그 리하여 潤松의 百濟佛이 아니냐 하시며 湖南(群山附近)搬出이라 傳한다고 하신 來歷을 나는 나의 생각대로 이와같이 解釋하고 말았다. 이같이 혼자 固執을 부릴 때는 先生으로부터 연방 「대처승」 「황거물」이라는 「너 크네임」을 받게 된다. 오래간만에 葆華閣을 찾아가 이 石物들을 대하면서 先生의 말씀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新春을 맞아 葆華閣에도 새 出發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像高二 m 四十 肩幅六七 cm。

謙齋畫嶠南名勝帖의 慶州 骨窟石窟圖

全 映 雨